


3월11일(수) 석간용 입니다

 <p><b>노동부</b> Ministry of Labor</p>	<b>보 도 자 료</b>
	<p>▶ 지역고용개발팀장 이성룡 ▶ 황계자 사무관</p> <p>T E L : 6902-8474 E-MAIL : happylady100@molab.go.kr F A X : 502-6855</p>
<p>▶ 2009. 3. 10 배포 ▶ 총 3쪽 (사진 없음)</p>	

**“금년 6월부터 비정규 건설근로자 10만 명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시행키로”**  
- 노동부장관 양천구 신정동 새벽인력시장 방문

-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3.11(수) 양천구 신정사거리 새벽인력시장을 방문, 최근 국내·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근로자들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,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일용근로자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,
  -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“정부가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근로자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줄 안다” 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  - 또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기금을 활용해 “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”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하고,
  -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6월부터는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하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감이 없는 날을 이용해 산업안전교육, 도면보기교육, 기능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만 명 규모의 “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\* 대상 : 건설퇴직공제부금 100만원이상 적립자 12만4천명, 1,370억원
- \*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(산업안전교육, 도면보기교육, 기능훈련) : 10만명, 교육훈련 참가 시 식대 및 교통비 1일 1만5천원 지급

○ 이 자리에 참석한 인력시장 관계자는 “신정동 새벽인력시장의 경우 평소 1일 약 150~200여명이 이용하였으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 이용자가 하루 80여명으로 감소하였고, 그나마 당일 일거리를 잡는 사람은 5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”며 경기불황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더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을 호소했다.

- 붙임 : 1. 신정동 새벽인력시장 현장방문계획 1부.
2.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개요
3.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사업 개요

## 붙임 1

### 장관님 신정동 새벽인력시장 현장 방문 계획

#### 1. 추진 배경

- 최근 경제위기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벽인력시장을 찾는 일용근로자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

#### 2. 행사 개요

- 일시 : '09.3.11(수) 05:30~07:00
- 장소 : 양천구 신정사거리 인력시장  
(서울 양천구 신정동 1191 신정사거리 국민은행 앞 인도)
- 참석자
  - 노동부 : 장관님, 기획조정실장, 지역고용개발팀장(이상 본부), 서울남부 지청장, 남부센터 소장 등
  - 지자체 : 서울 양천구 구청장(추재엽) 등
- 세부일정(안)

시간	내용	비고
05:30	○ 인력시장 현장 도착	영접 : 지청장
05:30 ~ 05:50	○ 건설근로자 대화 및 격려(애로사항 청취)	격려품 전달
05:50 ~ 06:10	○ 유료직업소개소 방문 - 구직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	보람인력
06:10 ~ 07:00	○ 관계자 조찬	인근 식당

## 붙임 2

###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개요

#### 1. 사업필요성

##### □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 전달체계 구축 필요

- 건설업 산업재해의 89.5%는 입사 6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건설현장은 안전교육 실시 능력 부족으로 광범위한 산업안전교육 사각지대로 존재
  - 특히 인력시장 등에서 당일 공급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의 한계

##### □ 공식적·체계적인 기능습득체계 필요

-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경우 생계유지 등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“도제식 훈련”(십장·반장에 의한 어깨너머 습득 방식)으로 기능이 전수
  - 비체계적 훈련으로 기능습득에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십장·반장 등에 대한 인격적 종속 등의 폐단이 발생

##### □ 고용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

- 최근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건설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의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각
  - 적극적인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일거리를 잡지 못하는 일용근로자를 「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」으로 유인하여 산업안전교육, 도면보기, 기능훈련을 실시

※ 교육훈련 참가 시 식대 및 교통비 지급(1일 15,000원)

## 2. 사업추진계획

- 사업추진주체 : 건설근로자공제회(위탁사업)
  - \* 다만, 산업안전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추진
- 사업기간 : '09. 6. 1 ~ '09. 12. 31(시범사업)
  - \* 시범사업 평가 후 사업 계속여부 결정
- 교육훈련기관 선정 : 사업공모
  - 산업안전교육기관, 공공 및 민간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모·사업선정위원회 구성,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선정
- 운영관리
  - 시범사업 모니터링 지속 실시(지역별 멘토 지정 - 월별 멘토회의 개최)
  - 교육훈련기관은 훈련실시상황을 매주 제출

## 3.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방안

### 3-1. 산업안전교육 프로그램(1일 과정, 90,000명)

- 교육대상 : 건설현장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
  - 지방관서의 「일일취업센터」 및 시·도 「일일취업안내소」 구직자, 유·무료취업알선기관 구직 등록자, 건설일용 실업급여 수급자,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등 산업안전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우선 선발
  - 중소기업체에서 기초안전교육 의뢰 자
- 교육훈련기관 : 공모 (민간재해예방단체, 사업주단체, 근로자단체 등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)
- 교육내용 : 표준교육과정 및 교육콘텐츠 개발 운영

- 1일(6시간)과정으로 개발·운영

### ○ 교육이력관리

- 교육수료생에 대하여는 개인별 교육이력관리
-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증을 발급, 개인별 교육실시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

### ○ 교육이력활용

- 건설현장에서 전산망에 접속하여 산업안전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
-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기 안전교육을 면제

### 3-2. 도면보기 교육훈련 프로그램(5일 과정, 5,000명)

- 교육대상 : 건설현장 종사 근로자 또는 구직자 중 선발
  - 사업주단체 및 중소기업체 등을 통하여 훈련수요 개발, 건설업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
- 교육훈련기관 : 공모(건설교육훈련기관, 건설사업주단체, 건설근로자단체, 공공 및 민간교육훈련기관 등)
- 교육내용
  - 구조물 설계 및 시공과정 전반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·보급 시행
  - 5일 과정(1일 6시간)으로 개발·운영
- 교육이력관리 및 활용
  - 교육수료생 전산시스템 등록을 통하여 건설현장 취업알선 정보자료로 활용

### 3-3. 건설 기능훈련 프로그램(20일 과정, 5,000명)

- 교육대상 : 건설현장 경험이 있는 자 우선 선발(5천명)
  - 고용보험 이력 및 건설퇴직공제제도 근로이력 등으로 확인
- 훈련내용: 비정규직 건설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직종
  - 조적, 미장, 도배, 도장, 타일, 용접, 보일러, 배관 등
- 훈련기준 및 교과과정 운영
  - 훈련시간은 1일 6시간(토, 일요일은 제외)
  - 현장 직무중심으로 실습위주로 20일 단위 과정으로 편성하되, 가능 수준(또는 진도)에 따라 개인별 지도가 가능하도록 모듈식 운영
- 훈련교사: 기능장 및 해당분야 실무경험이 많은 우수한 기술·기능인력 pool을 별도로 구성
- 교육훈련수료생 지원
  - 일정한 기능수준 도달 자에 대하여 DB등록, 지속적인 DB관리 및 취업알선 실시, 자격취득 지원
  - 훈련수료생 경력관리 및 재교육, 복지사업 자료로 활용

### 4. 기대 효과

- 비정규직 건설근로자(건설 기능인력)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경기 호전 시 소득향상 도모
- 건설기능인력 체계적인 훈련 환경 조성
  - “도제식 훈련”(십장·반장에 의한 어깨너머 습득방식)에서 공식적·체계적 훈련 참여 유도
- 고용 중심의 사회안전망 역할 기대
  - 1일 15,000원의 식대 및 교통비 지급을 통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

## 붙임 3

##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사업 개요

### □ 사업필요성 및 목적

-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 대부분은 자산이 없고, 신용상태가 낮으며, 고용불안정 등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부제도의 수혜가 어려워 별도의 전달체계 필요
-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대규모의 「생활자금 대부제도」를 시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

### □ 기본방향

-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용된 「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기금」을 토대로 개인별 적립금의 일부를 생활자금으로 대부
- 퇴직공제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대규모의 대부사업은 금년 상반기(3.2~6.30)에 한시적으로 운영(소규모 대부사업 계속여부는 별도 검토)
  - ※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취지는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'9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, 기금증식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에게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지급

### □ 세부 사업 계획

#### ○ 대부대상

- 공제부금 적립액(이자 포함)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
  - \* 신청자격 확인 :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([www.kcwmf.or.kr](http://www.kcwmf.or.kr))나 ARS 1644-1900로 확인이 가능
  - \* 개인별 사전통지(엽서 및 별도 SMS 문자서비스 제공 등)

#### ○ 대부신청(예상) 인원 및 대부금 규모(추정)

- 약 125,000명 신청 예상(대상자 147,449명의 80% 추정), 1,370억원

#### ○ 대부종류 및 대부한도

- 생활자금(신청사유 제한 없음)
- 대부한도 : 개인별 적립액의 50% 범위(최고 300만원 한도)

○ **대부조건**

- 대부기간에는 이자 부담이 없으나, 퇴직공제금 지급 시 대부 금액에 대하여는 대부기간 동안 이자 미지급
- 2년. 다만, 1년 연장 가능(본인 희망에 따라 조기 상환 가능)
- 일시 상환, 분할 상환 가능(신청 시 근로자가 선택)

○ **대부 신청서 접수 및 서류**

- 접수 기간 : '09. 3. 2 ~ '09. 6. 30
- 신청 접수 :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·지부, 신한은행 전국 각 지점
  - \* 우편접수 : (우편번호 135-701)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-2 건설회관 5층 건설근로자공제회
- 신청서류 : 신청서(접수처에 비치), 신분증 사본, 본인명의 통장사본

○ **처리기간(접수~대상자 확정)**

- 접수 후 5일 이내
  - \* 단, 근로관계 사실 조회가 필요하거나 일시에 대부 신청이 집중되어 자금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
- 대부사업 관련 문의 및 상담은 ☎ 1577-5711로 가능

# 장관님 신정동 새벽인력시장 현장방문 계획

< 지역고용개발팀, '09.3.10. >

## 1. 추진 배경

- 최근 경제위기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벽인력시장을 찾는 일용근로자를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

## 2. 행사 개요

- 일시 : '09. 3. 11(수) 05:30~07:00
- 장소 : 양천구 신정사거리 인력시장  
(서울 양천구 신정동 1191 신정사거리 국민은행 앞 인도)
- 참석자
  - 노동부 : 장관님, 기획조정실장, 지역고용개발팀장(이상 본부), 서울남부 지청장, 남부센터 소장 등
  - 지자체 : 서울 양천구 구청장(추재엽) 등
- 세부일정(안)

시간	내용	비고
05:30	○ 인력시장 현장 도착	영접 : 지청장
05:30 ~ 05:50	○ 건설근로자 대화 및 격려(애로사항 청취)	격려품 전달
05:50 ~ 06:10	○ 유료직업소개소 방문 - 구직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	보람인력
06:10 ~ 07:00	○ 관계자 조찬	인근 식당

- 기타 : 격려품 준비

## 붙임 1

## 격려 및 간담회 시 말씀 참고자료

- 이른 새벽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함
-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우리나라 경제 및 고용상황이 좋지 않음
- 특히 주택경기 쇠퇴로 누구보다도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
- 정부에서는 국책사업 및 국민주택공사 조기 착공 등을 통하여 건설경기 진작에 노력하고 있으며,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등을 추진 중임
-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정책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사업도 개발 추진 중임
-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6월부터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찾지 못하는 경우 산업안전교육, 도면보기교육, 기능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“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”을 시행할 계획이며,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기금을 활용하여 “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”(3월~6월)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
  - \*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(산업안전교육1일, 도면보기교육5일, 기능훈련프로그램20일)참가 시 식대 및 교통비(1일 15,000원 지급)
  - \* 비정규직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: 퇴직공제부금적립금 100만원 이상 인 자
- 현 위기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혜를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
- 지난 98년 IMF 외환위기 때 이미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,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리가 가장 쉽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
- 이른 새벽에 일자리를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고마움과 한편 노동부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
- 현 위기를 잘 대처한다면 국가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믿음

## 붙임 2

### 양천구 신정사거리 새벽인력시장 현황

#### □ 시장 생성

- 70년대 소규모 단독 주거시설인 신정단지 조성 직후 건설 인력시장이 자생적으로 형성

#### □ 이용 현황

- 1일 인력시장 이용자 : 80여명(최근 경기 침체로 집결인원 감소)
  - ※ 주로 강서, 구로, 부천지역 등에 거주하는 일용근로자들이 이용, 평소 일 약 150~200여명이 이용
- 주로 철근, 콘크리트, 목공, 비계 전문 건설인력 집결
- 이용실태 : 현장업자와 사전 선약된 근로자들이 주로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거나 일부는 막연히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나온 신규 구직자 임
  - ※ 1일 인력시장 취업 성사율 : 50여명 현장으로 이동
  - ※ 인근지역 인력시장: 영등포(50여명), 신월동 (40여명)

#### □ 편의시설

- 특별한 편의시설 없이 노상에서 1~ 2시간 체류 후 해산
  - 주변상가의 커피자판기를 활용하고, 화장실은 주변건물을 이용
  - ※ 동절기('09.1.2~2.28) 서울시에서 편의시설 설치(텐트 3개동, 난로, 냉온수기 등) 운영하였다가 2월말 철거

## 붙임 3

### 새벽인력시장 현황 및 일용근로자 관련 대책

#### □ 전국적인 현황 및 운영실태

- 새벽인력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전국적으로 64곳 정도가 존재

구분	계	서울	인천	경기 일원	광주	대구	전주	울산
개소	64	21	6	20	5	6	1	5

- 대부분은 운영주체가 없고 별도 시설 없이 공원 또는 거리 등에서 단순히 일용근로자 일자리 매칭 장소로 활용
  - ※ '08. 11. 국무총리 새벽시장 방문으로 서울시에서 난로, 천막,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하였다가 대부분 2월말 철수
- 주로 비계, 철근, 미장, 조적, 콘크리트 등 건설 수공업분야 인력들이 집결되어 당일 일감을 구하고 있음
  - 지역별 특성에 따라 중화요리 조리사(남대문), 비닐하우스 인부(농촌 인근지역), 이삿짐센터 인부, 식당보조원, 농업인부(채소작물 재배) 등이 집결되는 장소도 있음
- 새벽인력시장은 연중 05:00~07:00에 집중 운영되고 있으며, 100명 이상이 집결되는 지역도 다수

#### □ 건설일용근로자의 애로사항 및 관련대책

-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실시
  - 최근 경기 침체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우므로(월 10~13일 정도 일함) 일자리 불안 없이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
  - 관급공사 등에 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일정비율 채용 권장 요구
  - 외국 인력의 무분별한 활용 방지

<관련대책>

- ☞ 건설 경기진작을 위하여 5조원의 재정투자, 5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목표로 각종 국책사업 및 국민주택 조기착공 등을 준비 중
- ☞ 경기호전 시에 대비하여 “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” 추진('09년 추경 신규사업 추진→ 교육참가 시 1일 1만5천원 지급)
- ☞ 건설현장 외국인력 취업등록제 시행

○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

<관련대책>

- ☞ 법상으로는 하수급인 임금체불에 대한 원수급인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('08년)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 내용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건설현장 체불 단속 사업장 집중감독 실시예정
- ☞ 실직자, 저소득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하여 체당금 신속지급 및 생활안정자금 장기·저리융자 확대(추경 5,533억원 증액 예정)
- ☞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별도 시행 (100만원이상 퇴직공제기금 가입자 12만 4천명 대상, 1,370억원 규모 )

○ 과도한 수수료 지불에 대한 시정

- 건설일용근로자 일당이 5만~6만원이나 교통비(픽업비) 및 소 개료(법정 수수료는 4%) 명목으로 일당에서 약 1만원을 제외

<관련대책>

- ☞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를 위한 구인·구직 네트워크 구축, 무료취업지원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
- 일일취업센터(공공) 3개소(울산, 대구, 대전), '08년 18,042명 취업
-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('08년): 11개소 33,019명 취업

□ 기 타 (추진 중 또는 추진 준비 중인 사업)

①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사업 추진(3.2~ 6월말)

- 퇴직공제기금을 재원으로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규모의 대부사업을 추진 3. 2부터 신청접수
  - \* 대상: 퇴직공제적립금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, 12만 4천명
  - \* 대부금 규모 : 1,370억원
  - \* 신청현황('09. 3. 6현재) : 19,302명, 175억원

② “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”추진('09년 추경 신규사업 준비 중, 09.6월부터 시행 예정)

- 경기 호전 시에 대비하여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을 통하여 소득안정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교육훈련사업 추진(6월~)
  - \* 대상 및 소요예산: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10만명
  - \* 교육내용 : 산업안전교육(1일), 도면보기교육(5일), 기능훈련(20일)
  - \* 교육 참가 시 교통비 및 식대 지급(1인당 1일 15,000원)

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추진

-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, 능력개발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사업 집중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('08. 12월말)
  - \* 제2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확정·추진('09년~'13년)
  - \* 시행계획 마련 중이며, 3월말까지 완료 예정
-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(기관명칭 변경 예정)를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고용·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, 다양한 사업추진예정